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김정선*

<차례>

- I. 머리말
- II. 웅중석은 돌하르방인가
- III. 돌하르방은 어디에서 왔는가
- IV. 돌하르방에 대한 몇가지 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독특한 돌문화 중 제주의 대표이미지로 통용되고 있다. 제주의 삼읍성 성문 앞에 세워져 있던 석상으로 문헌에는 ‘웅중석(翁仲石)’으로 기록되어 있다. ‘웅중’은 진시황때의 장수인 완옹중(阮翁仲)을 가리키며 그의 용맹스러움을 기려 성문 앞이나 궁궐 앞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후 이러한 석상들을 모두 웅중석이라 부르게 된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도 길가에 세워지는 석상, 무덤 앞에 세워지는 석상 등을 모두 웅중석이라 부르고 있어서 제주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웅중석은 지금의 돌하르방임을 알 수 있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몽고에서 기원했다는 북방전래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원했다는 남방전래설 그리고 제주도의 자생적인 조형이라는 점을 일부 포함한 육지전래설 등이 있다. 비록 제주도가 섬으로,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조선시대 중앙집권체제 하의 한 지방으로서, 어떠한 문화의 형성에는 많은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방전래설이나

* 제주돌문화공원 학예사, 충북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수료

남방전래설을 논하기에 앞서 육지부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장승·벽수와
의 친연성과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삼읍성의 돌하르방은 병거지형태의 모자, 하반신이 생략된 형태의 묘
사, 손의 표현 등에서 조형적인 공통점을 보이지만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삼읍성 각각의 독특함을 보인다. 삼읍성 돌하르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
거지형태의 모자나 부분적으로 표현된 옷착용 모습에서 당시 무인복식 중 모
자인 전립(氈笠)과 의복인 동다리, 전복(戰服)의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는 돌하르방의 주 기능이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 즉 무인
상이라는 점과도 일맥상통 한다.

현재 제주 삼읍성의 돌하르방은 복원 정비된 정의성 돌하르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되어 있다. 다행히 이동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이나 증언을 통해 각지로 흩어져 있는 돌하르방의 원위치를 부분적으로 파악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상을 찾는 작업은 돌하르방을 본래의 위치에 옮겨놓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 돌하르방, 웅중석(翁仲石), 삼읍성, 북방전래설, 남방전래설, 육지전래설, 장승,
벽수, 병거지, 전립(氈笠), 동다리, 전복(戰服), 무인상, 원위치

I. 머리말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석상문화를 가지고 있다. 무덤의
동자석, 읍성 앞의 돌하르방, 마을의 허한 곳을 막는 방사탑이나 거옥대,
돌코냉이 등의 석상, 그리고 미륵불로 불리는 동자복과 서자복 등 형태
나 기능 등에서 다양한 제주의 돌문화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돌문화의 형성은 제주도가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다른 지방과
는 달리 돌과 밀착된 생활의 한 면이 자연스럽게 석상제작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섬이라는 한정되고 폐쇄된 지리적 공간이라는 제주의 자연환경적 특징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문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유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제주의 석상문화 중 제주의 대표이미지로 통용되고있는 돌하르방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돌하르방은 제주목 24기, 대정현과 정의현에 각각 12기씩 총48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제주목의 1기는 분실되었고 가장 마지막까지 제주읍성 동문밖에 세워져 있었던 8기 중 2기는 1960년대에 국립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 제주도에는 총 45기가 남아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돌하르방’이란 명칭은 제주도에 남아있는 45기의 이 석상에 대해 1971년 제주도민속자료로 지정할 때, 당시 우석목(우성목), 무석목(무성목), 벽수머리, 두룽머리, 웅중석 등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것을 ‘돌하르방’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명명하여 지정하였고 다양한 관광상품과 제주의 대표이미지로 홍보되면서 급속도로 일반화되어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돌하르방’은 언제 어떠한 연유로 제주도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설로 일반화되고 있지 않으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속설이나 흥미위주로 소개되고 있어 돌하르방의 올바른 이해를 더디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글에서는 돌하르방에 대한 몇가지 논의들과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옹중석은 돌하르방인가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유래 등을 밝힐 수 있는 역사서 등의 문헌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며 제주를 왕래한 외지인들에 의해 기록된 제주의 풍토록이나 시문, 각종 읍지류 등에서도 돌하르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1918년 간행된 心齋 金錫翼(1885~1956)의 編年體 역사서인 『耽羅紀年』에 “갑술 30년, 청 건륭 19년(영조 30년, 1754)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옹중석을 세웠다¹⁾” 라는 기록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돌하르방과 관련지어 해석하는데에는 몇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첫째는 『耽羅紀年』에 기록된 내용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 기록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저술된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석익의 역사저술형태를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耽羅紀年』은 고려 태조 21년(938)부터 광무 10년(1906)까지의 제주도 역사를 4권으로 나눠 쓴 편년체 역사서이다. 태조 21년 이전의 제주도 역사는 ‘外書’라 하여 본 卷과 구분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에 의심되는 바가 많아 정사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석익은 이 책의 서술에 제주지역의 읍지류, 『관풍안』, 『효열록』, 『빈홍록』 등의 자료와 『삼국사기』, 『고려사』, 『해동고기』, 『여지승람』, 『해동역사』, 『연려실기술』, 『대동야승』 등의 문헌, 그리고 『사기』, 『상서』, 『괄지지』, 『후한서』, 『후위서』, 『수서』, 『신당서』, 『한창려집』, 『원사』 등의 중국문헌과 『일본서기』 등 매우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²⁾.

1) 김석익, 『耽羅紀年』, 1918 : 甲戌三十年 清乾隆十九年 牧使金夢奎設翁仲石於城門外.

이러한 김석익의 역사서술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다양한 문헌고증 방법을 통한 저술형태를 볼 때 비록 『耽羅紀年』이 1918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자료이지만 단순히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저술된 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웅중석에 대한 기록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한 신빙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³⁾.

두 번째는 기록에 보이는 ‘翁仲石’이 지금의 돌하르방인지의 문제이다. 翁仲은 중국 진시황 때 인물인 阮翁仲을 말한다. 완옹중은 진시황때의 용맹스러운 장수로 그 명성이 흉노에까지 떨쳐졌다. 완옹중이 죽자 진시황은 그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 성문 밖에 세워 두었는데 완옹중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흉노족들이 쳐들어오다 성문 앞의 완옹중 상을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고 한다. 이후로 진나라 사람들은 완옹중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 그의 형상을 구리나 돌로 만들어 궁궐이나 관아 앞에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⁴⁾. 후에는 ‘翁仲’

2) 김석익은 제주인들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통렬히 비판함은 물론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史氏曰…’ 이라 하여 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있어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한 기록의 경우 사실의 취사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이 역사서의 특징이다. 김동전,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 박물관, 2004, 127~130쪽.

3) 1754년 제작에 대해서는 1702년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각 읍성 그림에 돌하르방이 표현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단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4) 『승정원일기』 고종2년 11월 10일 신미 : 상이 이르기를, “쇠사람[金人]을 웅중이라고 부르는가?”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진시황 때에 완옹중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1장 3척이고 지혜와 용기가 탁월하여 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임조(臨洮)를 지키게 하였는데, 명성이 흉노에까지 떨쳐졌습니다. 쇠사람을 웅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흉노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숫자를 12개로 한 것은, 이 당시에 대인(大人) 12명이 임조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거하여 형상을 빚어 만든 것입니다.”하였다. (上曰 金人號以翁仲乎 世均曰 始皇時 有阮翁仲者

이 銅像이나 石像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 되었다.

이처럼 ‘웅중’은 성문 앞을 지키는 석상에서 유래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에서는 무덤 앞에 세운 석상, 길가에 세운 석장승, 풍수상의 이유로 세운 석상 등을 모두 웅중석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선 무덤 앞에 세운 석상에 대해서는 박지원의 『연암집』 冷齋集序에

장석(匠石 돌을 다듬는 사람)이 기궤씨(剗劂氏 돌에 글씨를 새기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천하의 물건 가운데 돌보다 단단한 것은 없다. 그렇게 단단한 것을 베어 내어 자르고 깎고 하여 이수(虯首)와 귀부(龜趺)를 만들어 신도(神道)에 세우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공이니라.”하니, 기궤씨가 이렇게 말했다. “오래도록 닳아 없어지지 않기로는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없다. 위대한 인물의 훌륭한 행적에 대하여 군자가 비명(碑銘)을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나의 공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차 그 빗돌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그렇게 닦다다 마침내 마렵자(馬鬣子: 무덤)에게 함께 가서 시비를 가리려 했으나, 마렵자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있지만 할 뿐 세 번을 불러도 세 번 다 대답이 없었다. 이때 옆에 있던 석옹중(石翁仲)이 꺾꺾대고 웃으면서, “그대들은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돌보다 더한 것이 없고, 오래도록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구먼. 비록 그러하나 돌이 정말 단단하다면 어떻게 깎아서 빗돌을 만들 수 있겠으며, 닳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글자를 새길 수 있겠는가. 그것을 깎아서 새길 수 있는 이상 부역을 만드는 사람이 가져다가 술을 얹히는 이맛돌로 쓰지 않으리라 어찌 장담하겠는가.” 하였다⁵⁾.

身長一丈三尺 智勇超凡 使之將兵守臨洮 聲振匈奴 金人之號以翁仲者 使匈奴畏之之意 而厥數之爲十二 因此時 有大人十二 見于臨洮 故依其數而鑄象者也.)

- 5) 박지원, 『燕巖集』 冷齋集序 : 匠石謂剗劂氏曰 夫天下之物 莫堅於石 爰伐其堅 斷而斲之 虯首龜趺樹之神道 永世不壽 是我之功也 剗劂氏曰 久而不磨者 莫壽於刻 大人有行 君子銘之 匪余攸工 將焉用碑 遂相與訟之于馬鬣子 馬鬣子寂然無聲 三呼而三不應 於是石翁仲 啞然而笑曰 子謂天下之至堅者 莫堅乎石 久而

고 하여 무덤 앞에 세워진 석상을 ‘석옹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아정유고에는 고충 앞에 세워진 옹중의 처량함을 노래하고 있다.

옹중은 처량하고 고충은 무너졌는데 / 석양에 갈가마귀떼 수없이 울고 가네⁶⁾

위의 두 사료에 보이는 것처럼 무덤 앞에 세워진 석상을 옹중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가에 세워진 석상의 예로는 박순의 『사암집』에 실린 칠언고시인 노상석옹중(路上石翁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마도 왕년에는 묘 앞에 있던 물건일텐데 / 세속에서 와전되어 미륵이라 부른다 / 지나가는 행인들 각자가 소원을 빌고 / 짚이며 비단이며 자른 말갈기 등을 바친다⁷⁾

이 시에서는 무덤 앞에 세워져 있던 석상이 길가로 옮겨져 무속의 대상으로 기능이 변화된 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경전의 『석루유고』, 소사노중(所沙路中)에는 갈림길에 세워져 이정표 역할을 하는 석상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옹중을 마주하니 갈림길도 헤매지 않네⁸⁾

不磨者 莫壽乎刻也 雖然 石果堅也 斲而爲碑乎 若可不磨也 惡能刻乎 旣得以斲而刻之 又安知築竈者不取之以爲安鼎之題乎.

6) 이덕무, 『청장관전서』11권, 아정유고 : 翁仲蕭蕭敗塚斜 / 夕陽無數送寒鴉

7) 박순, 『思菴集』, 路上石翁仲(칠언고시) : 恐是往世墓前物 / 俗語轉訛稱彌勒 / 行旅祈禳各有求 / 人施米帛馬剪鬣.

8) 이경전, 『石樓遺稿』, 所沙路中 : 翁仲臨岐路不迷

또한 『광주읍지』 산천조에는

유림수는 주의 서쪽 10리에 있다. 풀과 나무를 심어 수구를 만들고 석옹
중 2기를 마주세워 그 기를 진압하고⁹⁾

라고 하여 풍수상의 이유로 세워진 석상을 옹중으로 부르기도 한다¹⁰⁾.

이러한 여러 문헌상의 예에 비추어 볼 때 1754년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세웠다는 옹중석은 완옹중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했던 석상, 즉 지금의 돌하르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翁仲石’이라는 명칭은 기록에도 남아있듯이 당시 유학자
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고사에 빗대어 일반적으로 쓰이던 명칭으로 여겨
지나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대중적인 명칭은 아니었던
듯 하다. 이는 1960년대에 이루어진 돌하르방 조사 당시 채집된 명칭에
우성목(우석목), 무성목(무석목) 등이 주 명칭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
에 벽수머리, 두릉머리 등과 일부 한학자들에 의해 ‘옹중석’이라는 명칭
이 전해지고 있었거나¹¹⁾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¹²⁾ 육지부의 석
상 또한 여러 문헌에서 옹중이라는 명칭으로 남아있으나 오히려 민간에
서는 법수, 벽수, 수살, 장생, 장승, 장성, 장선 등의 이름으로 전래되고

9) 『광주읍지』 산천조 : 柳林藪在州西十里 雜植卉木爲州水口 對峙石翁仲二鎮之

10) 이외에도 ‘옹중’에 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며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
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8 와 정승모, 『돌하르방과 타 지역 석상 비교』,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
화공원, 2007 등의 논문에도 여러 예가 소개되고 있다.

11)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 考』,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52쪽.

12) 김영돈, 『돌하르방』,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226~228쪽.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¹³⁾.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위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1754년 돌하르방 제작 당시 제주 삼읍성 밖에 동시에 제작되어 세워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탐라기년』의 기록에는 어떠한 특정한 지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성문 밖’에 세웠다고만 기록하고 있어 이 기록이 당시의 삼읍성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주읍성인 제주읍성만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54년 담수계에서 펴낸 『증보 탐라지』에는 옹중석에 대해 “제주읍성 동서남 三門外에 在하고 4087년 甲戌 영조30년에 목사 김몽규가 창건한 바인데…¹⁴⁾”라고 하여 제주읍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기록이 『탐라기년』보다 더 늦은 시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적인 기록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이 기록만을 가지고 삼읍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차를 언급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연구실적이 없다. 그러나 제주 목, 정의현, 대정현 삼읍 돌하르방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조각수법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조성 시기적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욱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돌하르방 제작이 어느 개인의 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목사의 명에 의한 관주도하에 이루어진 일로, 각 읍성별로 시기적인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각 읍성별로 돌하르방 조성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이상 『탐라기년』의 돌하르방 관련 기록에 대한 해석문제에 대해 몇가

13) 다산 정약용의 『詩文集』 제13권 記條 朝夕樓記에 “自農山東行數里曰 翁仲之山 - 方言翁仲曰法壽-厥王考葬焉 亦有園圃之勝 謂之翁山別業”이라 하여 옹중산에 대한 細主로 ‘방언으로 옹중을 법수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

김두하, 『백수와 장승』, 집문당, 1995, 43~148쪽.

14) 담수계 편, 『증보 탐라지』명승고적조, 1954, 82쪽.

지를 논하였다. 우선 옹중석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탐라기년』의 돌하르방 관련 내용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기술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김석익의 역사서 저술자세를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기록으로 여겨지며 이에따라 돌하르방의 1754년 제작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록에 보이는 ‘옹중석’이 현재의 돌하르방을 지칭하는지의 문제는 앞서 인용한 많은 사료에서처럼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무덤 앞, 길가, 풍수상의 이유로 세워지는 각종 석상 등을 모두 옹중 또는 옹중석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당시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탐라기년』에 기록된 옹중석 역시 석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더불어 당시 성문 앞에 세워지는 석상을 옹중석이라 하였다면 지금의 돌하르방을 가리키는 내용임은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삼읍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차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앞으로 민속학적, 역사학적,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Ⅲ. 돌하르방은 어디에서 왔는가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주로 형태상의 유사성을 최우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몽고에서 기원했다는 북방전래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원했다는 남방전래설 그리고 제주도의 자생적인 조형이라는 점을 일부 포함한 육지전래설로 구분할 수 있다.

1. 북방전래설

북방전래설은 13~14세기 고려-몽고의 관계, 특히 제주-몽고의 관계를 들어 제주 돌하르방이 몽고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이다.

동몽고 다리강가 대초원의 거대한 목초지에 제사유적성격의 돌무더기인 오보오와 함께 세워지는 훈출로를 돌하르방의 기원으로 보는 설로, 훈출로는 별칭으로 ‘Haraadag’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늘 지켜보는 이’라는 의미로 명칭의 유사성도 기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 다리강가 대초원의 훈출로는 목초지를 수호해 주는 수호신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말을 기르는 악타치들의 이동과 함께 그들의 수호신인 훈출로도 함께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몽고의 국영목마장의 하나였던 제주도에도 이들 악타치들과 함께 훈출로가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몽고 다리강가의 예와 마찬가지로 처음 제주도에서도 본래 목마장에서 목초지를 수호하던 수호신으로 세워졌으면 몽고가 망하고 오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육지부의 장승이 갖는 기능과 혼용되어 버리기는 했지만 본래의 기능은 목초지의 수호신이라는 것이다. 다리강가 석상의 형태를 보면 입상과 좌상의 형태를 보이며 손의 위치는 대부분 지물을 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있고 다리나 발까지 또렷이 조각된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하반신이 생략된 형태로, 조각수법이 단순하여 몽고의 것보다는 퇴화된 형태를 보이거나 현재의 돌하르방이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꼴은 13~14세기의 훈출로라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몽고전래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15) 주재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와 관련하여-』, 『청대사림』6, 청주대학사학회, 1994, 81~95쪽.

우선 형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유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병거지를 쓴 모습이나 얼굴표현, 배에 두 손을 붙인 형태 등 이러한 조각상의 수법은 직접적인 문화 교류 없이도 초보적인 석공 단계나 재질적 특징에 의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조각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또한 돌하르방은 하반신이 생략된 채 상반신만 표현된 것인데 비해 몽고의 훈출로는 의자에 앉아있는 형태로, 하반신도 표현되어 있으며 석상이 세워진 곳도 ‘오보오’라는 제사유적 성격의 돌무지 앞에 앞을 바라보는 형태로 세워지는데 비해 돌하르방은 읍성 문앞에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세워지고 있다.

13~14세기의 훈출로를 본꼴로 하던 제주의 석상이 18세기 이후에 육지부의 장승 기능과 혼용되어 ‘다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성문 앞에 수문장으로 세워지는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나 서로 마주보게 세워지는 형태, 읍성의 앞이라는, 세워지는 위치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당시 몽고의 목마장지대에서 어떠한 수호신의 기능을 했음직한 석상이 발견된 예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몽고의 다리강가 지역에서는 13~14세기 이후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훈출로와 그 제작시기를 18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는 제주도의 돌하르방을 같은 맥락으로 연결짓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이며 만약 이러한 북방전래설을 수용한다면 이 두 석상사이의 400여년 이상의 공백기에 대한 해석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¹⁷⁾.

16)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8, 219~220쪽.

17) 이 문제에 대해 주채혁은 몽골의 다리강가 지역에서는 몽골간국의 멸망과 함께 훈출로를 수요로 하는 칸과 칸족의 세력도 거의 사라졌지만 제주도에서는 새왕조 명의 창업자 주원장의 권장하에, 투항한 몽골칸의 후예들이 그 수요자로서 그 후에도 제주도에 살아 남아 훈출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돌하르방을 수요하고 있었던 것으

2. 남방전래설

남방전래설은 동남아시아나 남태평양 열대지역의 남방 해양민족의 신상이 필리핀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흐르는 흑조해류를 타고 북상하여 전래되었다고 하는 설이다.

이 견해는 육지부의 석상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석상의 분포범위가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해안과 남해안에서 멀지 않은 내륙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점, 석상의 얼굴모양이 한국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점, 그리고 이러한 석상이 만주나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한반도의 남부지역과 도서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점¹⁸⁾ 등에 의문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형태적인 유사성을 둔 자료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베사키 사원에 있는 석상으로, 크기는 50~70cm 정도로 우리나라의 석상에 비해서는 작으나 불거져 나온 눈,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자 등에서 우리나라 석상과의 유사성을 지적하였고 특히 두 손을 앞에 모은 형태는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똑같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출신 탐험가 디오 헤이어달(Thor Heyerdhal)이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와 이스터섬을 포함한 남태평양의 여러 群島에서 석상이 발견되는 것은 이 석상문화가 중남미지역으로부터 적도이남에서 서쪽

로 보고 있다. 또한 돌하르방이 훈출로와는 달리 하반신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나 손에 술잔 등의 표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리강가의 훈출로와는 그 위상이 다르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퇴화된 까닭으로 유추하고 있다.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와 관련하여』, 『강원사학』9, 강원사학회, 1993, 95~96쪽.

- 18)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에 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 주채혁은 1914년부터 이미 북에니세이 분지에 동몽골 훈출로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 이후의 많은 자료에서도 석상이 보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17)의 논문, 96~107쪽.

으로 흐르는 해류를 타고 남태평양제도로 전파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들 석상문화를 이룬 사람들은 해양문화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석상문화는 환태평양-동지나해로 이어지는 해양문화의 내용 중 거인송배신앙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석상의 형태적인 유사성 외에 석상에 기복행위를 비는 주술적인 기능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¹⁹⁾.

그러나 석상의 세부표현에 있어서 석상의 크기를 제외하고도 발리의 석상은 성기를 표현하여 남녀의 구분을 뚜렷이 하고 있는 점, 남녀노소의 다양한 석상이 존재하는 점 등과 제주도 돌하르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더 나아가 과연 적도해류와 흑조해류의 순환을 이야기한다면 중남미지역에서 발견되는 석상과 발리의 석상, 그리고 제주도의 석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논리라면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을 발리섬의 석상이 아닌 중남미의 석상을 원류로 봐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방전래설의 논의에서도 말했듯이 조각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나 재질상의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단순한 조각상의 수법이나 표현의 공통성만으로 문화의 교류나 전파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상호간에 교섭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명간에도 문화적 공통성이 나타나는 예는 무수히 많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도 발리섬 석상의 경우 사원 등에 설치되어 기복행위를 비는 주술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이는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돌하르방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²⁰⁾을 잇은 채 기능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경우

19) 김병모, 『韓國 石像文化 小考』, 『한국학논문집』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1~12쪽; 『김병모의 고고학여행』1, 고래실, 2007, 48~68쪽.

20) 김병모는 돌하르방의 기능면에 있어서 원래는 사람이나 가축을 질병이나 적의 침입

이다.

3. 육지전래설

육지전래설은 엄밀히 말하자면 제주 자생의 것과 육지부 석상문화의 융합이라는 부분을 엄두에 두고 융합 정도나 형태에 따라 여러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진성기는 돌하르방이 ‘우석목’, ‘무성목’ 등으로 불린 것으로 볼 때 ‘-목’이라는 명칭은 돌하르방석상의 조형이 木像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부터 있었던 제주주민들의 목상이 석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한편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몽고와의 영향관계, 다른 유형의 人石像이 분포하는 육지부와 남태평양상의 여러 도서지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등을 고려하여 문화인류학적인 조명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¹⁾.

현용준은 돌하르방을 받쳤던 받침돌의 모양에 주목하여 돌하르방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목 돌하르방의 경우 받침돌에 ‘『’ 또는 ‘□’ 형의 홈이 있는데 이를 제주도 무속의례 때 노래하는 신화 <문전본풀이>의 ‘정주목·정살지신’과 연관짓고 있다. 제주의 민간신앙에서 정주목이나 정낭은 단순한 나무나 돌기둥이 아니라 초자연적 신격을 가진 성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정주석의 형태, 기능이 돌하르방의 받침돌에 옮겨갔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돌하르방은

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잊혀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여 기복신앙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돌하르방 연구자들은 성문 앞의 수문장·수호신의 기능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꼽고 있다. 김병모 앞 책 68쪽.

21)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2003, 205~213쪽.

‘정주목’의 발전적 변형으로 ‘정주목신’의 彫像이며 그 받침돌은 ‘정낭’을 꿇았던 잔재로, 비록 거의 바닥에 닿게 정낭을 걸치는 행위는 매우 비실용적으로 보이겠지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주술적인 통행금지 기능이 더해져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육지부에 분포하고 있는 석상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통영 석장승의 예를 들면서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돌하르방이 중앙집권이 확립된 영조 때에 설립된 것과 불상적 기능의 석상밖에 없던 제주도에 갑자기 이 석상이 제작된 것은 외래적인 영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돌하르방의 前身인 정주목 신상에 대한 설명은 아주 우둔한 장년 정도로만 그려지고 있어 제주 토속의 조형을 모티브로 하여 조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점을 종합하여 현용준은 목사 김몽규가 육지부에 이미 널리 제작되고 있었던 장승의 형상과 민속적 기능을 이미 알고 와서 실용적 기능이 없어진 정주목을 장승식의 석상으로 제작하여 건립하고자 했고, 조각자는 제주의 무속적 신상관념과 기능을 결부시켜 그러한 형상을 조각하여 놓은 것이라는 견해이다²²⁾.

이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육지전래설의 견해를 보이는 연구자는 김영돈이다. 그는 돌하르방이 육지부의 ‘장승’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형태가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첫째는 목사 김몽규의 창건에 대한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기록에 근거한다면 김몽규는 본토인이고 이미 장승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돌하르방의 형태나 기능이 육지부의 장승과 너

22) 현용준, 앞의 논문, 258~265쪽.

무나 비슷하다는 점이다. 다만 육지부의 장승이 대부분 목제인데 비해 제주도에는 석제인 이유는 제주도가 石多의 섬임을 들고 있다. 셋째는 성읍리(정의현) 등지에서 돌하르방을 ‘벽수머리’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육지부의 남부지방에서는 장승을 흔히 벽수라고 부르며 장승의 조형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형태, 기능과 함께 명칭도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³⁾.

그리고 현용준이 피력한 돌하르방과 정주목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축성시기와 돌하르방 제작시기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한 해명이나 제주목 돌하르방 받침돌의 흠 등에 대한 풀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정현, 정의현 돌하르방의 받침돌에는 흠이 없는 점, 성문이 있는데 정낭시설이 필요한지, 정주목 신령과 돌하르방에 대한 이렇다할 전승이 없는 점 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²⁴⁾.

김두하는 돌하르방의 형태와 장승의 형태를 세세하게 비교하면서 돌하르방이 본토 석장승의 조형임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유사한 점은 크기가 본토의 석장승과 유사한 점, 머리에 쓴 감투가 석장승의 감투와 같은 점, 머리는 조각되어있으나 몸체는 柱形이며 신체의 하반부는 조각되지 않은 점, 눈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조각된 점, 표정이 怒相인 점 등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치아가 보이지 않는 점, 두 팔이 있고 손가락까지 부조되어 있는 점, 제주목 돌하르방의 받침돌에 흠이 있는 점, 전부 동시기에 조성되었고 3개의 읍성에 국한되어 설치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치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와 두 팔이 있고 손을 조각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육지부 장승에서도 보이고 있어 제주도 고유의 형태는

23) 김영돈, 『제주·대정·정의 주현성 석상』, 『한국문화인류학』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43~46쪽.

24) 김영돈, 주12)의 책, 241쪽.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육지에 장승이 성행하던 시기에 육지에서 부임한 목사의 권장에 의해 세워진 육지식 장승의 한 변형이라는 것이다²⁵⁾.

주강현은 문헌에 남아있는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인 18세기가 사회적으로 민중의식이 성장하여 전남·경남 일대에 석상물들이 다수 세워지던 시기이며 현존 민간석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명품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들어 제주도의 돌하르방도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하에서 제작되었고 생김새에 있어서도 육지부의 벽수와 친연성을 가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돌하르방의 조형성에 대해서는 제주의 동자석, 거옥대 등의 토착적 요소들과 육지부 석상의 결합으로 인해 제주도만의 독특한 돌하르방문화를 형성한 것이며 현무암이라는 돌하르방 재질에 따른 독특함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육지전래설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몇가지 의문점과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우선 명칭의 문제로 우석목, 무석목 등에 대한 해석이다. ‘-木’으로 해석하여 돌하르방의 전형이 목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나 정주목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며 더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하르방과 정주목신이라는 신상적 관념의 결부에 대해서도 돌하르방의 제작주체가 유교적 사상을 가진 목사 김몽규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과연 돌하르방 제작시 ‘돌챙이’ 조각자의 무속적 신상관념 등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조각에 표현될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다. 물론 제주목 돌하르방 받침돌의 흠이 정낭을 걸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은 충분히 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것이 제주의 무속적 관념의

25) 김두하, 앞의 책, 900~902쪽.

26)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I, 한겨레출판, 2007, 162~167쪽.

발현으로 표현된 것인지는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장현도 언급하고 있지만 돌하르방 제작 이전과 돌하르방 제작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제주도 석상문화, 예를 들면 동자석, 문인석, 동자복·서자복, 거옥대 등을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하르방을 육지부의 장승, 벽수의 변형으로 본다면 그 변형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이상 제주도 돌하르방의 유래에 대한 논의를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였다. 돌하르방이 세워지는 18세기의 제주도는 이미 조선시대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속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가 육지부와는 떨어진 절해고도의 섬으로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특이한 풍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것이며, 동일한 통치체제하에서 조성되는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양상은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돌하르방의 구성에 대해서도 육지부와 관련성을 배제하고 먼저 몽고나 인도네시아 등의 석상문화를 끌어들여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문화전파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더구나 하나의 통치체제하에서 형성된 친근한 문화를 배제하고 설명하는 것은 많은 논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선 돌하르방과 형태적, 문화적 친연성을 지닌 육지부의 장승·벽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그 원류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연구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만을 염두에 두고 사회·정치·문화적인 관련성은 무시한 채 단순히 제주도의 문화만을 독자적으로 떼어서 설명할 수도 없으며, 당연히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 지방으로서 어떠한 ‘전래’라는 관점보다는 한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의 전개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돌하르방의 제작주체는 목사 김몽규이며 관의 주도 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大事가 이루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다. 김몽규는 이미 육지부의 웅중석, 장승, 벽수 등의 형태와 기능을 익히 알고 있는 이이며 그것을 돌하르방의 모델로 제시했을 가능성은 깊다. 이러한 점은 굳이 돌하르방의 형태적 유사성을 몽고나 발리에서 끌어오지 않더라도 남원 실상사 상원주장군, 함양 영은사지 좌호대장군, 부안 동종리 상원주장군, 남원 실상사 옹호금사축귀장군 등 많은 수의 석상에서 돌하르방과의 친연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만 육지부의 석상문화가 유입되어 제주도의 돌하르방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주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비교연구를 통해 더욱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부언하자면 제주도로 부임 또는 귀양 온 많은 유학자들은 제주의 특이한 풍토를 다양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돌하르방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보고 지나쳐야 하는 곳에 위치에 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한가지 유추한다면 돌하르방이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에서 돌하르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닐까. 이미 육지부에서는 이러한 석상이 무덤이나, 마을 입구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돌하르방이 전혀 특색있는 제주만의 풍토로 여겨지지 않은 때문은 아닐까.

IV. 돌하르방에 대한 몇 가지 검토

1. 돌하르방의 조형적 특징 - 性과 신분

전술한 바와 같이 돌하르방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돌하르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현재의 명칭으로는 남성으로 되어있지만), 신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항간에는 돌하르방에 맞추어 ‘돌할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신분에 있어서도 손의 위치에 따라 무인 혹은 문인으로 구분하여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소개를 하기도 한다.

우선 ‘돌할망’이라는 것은 제주목 ‘돌하르방’ 중 가슴이 볼록한 것을 여성성의 표현으로 보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슴의 표현만으로 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 제주목 돌하르방의 얼굴표현을 보면 딱딱하고 근엄하여 마치 사찰입구의 사천왕상처럼 수문장으로서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쪽 어깨를 치켜올려 뒤로 튼 모습은 이러한 위협적이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슴을 볼록하게 조각한 것은 잘 발달된 근육을 표현한 것으로, 돌하르방의 기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며 여성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인한 남성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분의 문제이다. 손이 놓인 위치에 따라 무인상, 혹은 문인상으로 소개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무덤의 석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인상, 문인상은 모두 짝을 이루어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하르방이 애초에 단독으로 세워졌던 것이었다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엄연히 쌍을 이루어 세워지는 것으로, 여성, 남성 혹은 무인, 문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배치되었을 것이다.

제주목 돌하르방의 경우 사진자료로도 남아있는 동문 밖 돌하르방을 통해 살펴보면 오른쪽의 2기는 오른손이 위로, 왼쪽 2기는 왼손이 위로 조각되어있어 한편으로 규칙성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나 현존하는 총 23기를 살펴보면 오른손이 위로 표현된 것이 13기, 왼손이 위로 표현된 것이 10기로, 현전하지 않는 1기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율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정의현과 대정현 돌하르방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정의현의 경우 총12기 중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것은 남문 밖의 3기 뿐이며 나머지는 전부 왼손이 위로 표현되어있다. 대정현의 경우는 총12기 중 오른손이 위인 것은 8기이며 왼손이 위인 것 2기와 손을 나란히 한 것 2기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손의 위치로 돌하르방의 신분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돌하르방을 조각하기 위해 떼낸 석재의 형태에 따라 손의 위치를 조정하여 조각한 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현재 삼성혈 입구의 좌측에 있는 돌하르방이나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의 조각형태로 짐작할 수 있다. 삼성혈 앞 돌하르방의 모자조각부분을 보면 다른 돌하르방과는 달리 머리의 중앙에 모자가 위치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약간 밀린 듯 모자가 조각되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돌하르방은 얼굴자체를 기울어지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러한 표현 부분은 아마 원자재인 현무암석재의 채석형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돌하르방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무덤의 석상인 경우 손에 쥐고 있는 지물이나 복장에 의해 그 신분을 구별할 수 있지만 돌하르방에는 신분을 확인할 만한 뚜렷한 특징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석상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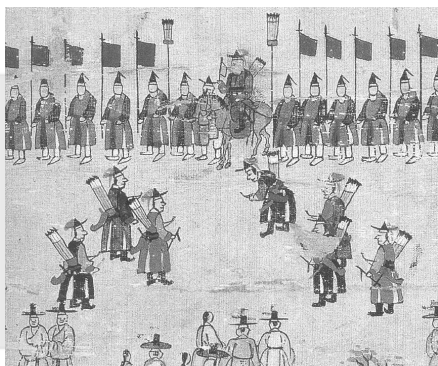
에 무인상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더불어 돌하르방의 조형적인 특징에서 무인복장의 모티브를 일부 찾을 수 있다. 삼읍성의 돌하르방은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듯하지만 크게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삼읍성 돌하르방의 공통적 특징은 모두 테가 둘러진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자는 병거지 또는 감투 등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돌하르방은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수문장의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는 무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삼읍성 돌하르방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자의 형태는 당시 무인들의 군복차림에 한 갓춤으로 쓰는 전립(氈笠/戰笠) 혹은 병거지²⁷⁾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립은 모정(帽頂)이 둥근 복발형 모옥(帽屋)에 양태(涼太)를 단 형태이다. 돌하르방의 모자 역시 모정이 복발형이며 테가 둘러져 있다. 하지만 테의 형태가 전립의 테처럼 퍼져있지는 않다. 이는 다공질 현무암이라는 석재상의 특징으로 인해 둥글게 퍼진 테형태를 조각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재질적·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단순화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또한 모자의 표현 중 <그림1>처럼 모자의 끝부분에 원형의 테가 여러개 둘러진 것과 모정에서 양태부분으로 세로로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전립의 모정에 장식되었던 정자나 기타 다른 장식물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²⁸⁾.

27) 전립은 일명 모립이라고도 하며 元의 것과 형태적 유사성을 들어 원과의 교류로 고려시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전립은 대개 품질이 좋은 毛로 만들며 貝纒이 달려있고 頂子에는 象毛가 달리는 것에 비해 병거지는 전립과 유사하나 주로 조잡한 돈모(豚毛)로 만들고 정자가 있고 둘레에는 빨간 끈으로 둘러매는 장식을 한다. 전립은 조선중기이후 융복에 많이 착용되었으며 전립이라는 명칭은 그 소재로 인해 생긴 것이다. 전립은 임란과 호란의 양란을 거치면서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융복이나 무관복의 일습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송혜주, 『조선시대 중인 복식 연구』, 이화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1~63쪽.



〈그림 1〉 제주성돌하르방 모자표현

〈그림 2〉 華城陵幸圖屏 중 華城聖廟展拜 부분
(출처 : 『조선시대 풍속화』, 15쪽)

다음으로는 복식의 문제이다. 모든 돌하르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 돌하르방 중에는 옷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모자가 무인이 주로 착용하는 전립 혹은 병거지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복장갓춤을 했을 것이다.

18세기대 무관의 복장은 일반적으로 동다리 위에 戰服을 입고 戰帶를 매며 머리에는 전립을 썼다<그림2>. 동다리는 협수(夾袖)라고도 하는데 소매통이 좁은 군복의 충칭으로 소매 전체 또는 소매의 일

부가 붉은색의 옷감으로 재봉되어있으며 전복은 소매가 없는 조기형태의 옷이다. 『진찬의례』에는 전복과 같은 형태를 쾌자(快子)로 명명하고 있어 正祖대에 중국으로부터 쾌자라는 의복명이 도입되어 소매없는 의복을 쾌자로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이러한 무관복장에서 돌하르방의

28) 무인의 전투복인 갑옷과 함께 착용하는 투구 중 전립과 비슷한 형태의 침주(簪冑)가 있는데 침주의 갑투부분을 세로로 장식한 예가 있어 이러한 것을 모티브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침주와 관련된 사항은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3, 76~78쪽 참조.

29) 권오선,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02, 18~23

부분적인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제주목 돌하르방의 경우 도포 형태의 소매표현, 소매 끝의 띠장식, 가슴부분에 띠를 맨 듯한 표현 등을 찾을 수 있다. <그림3>은 밑으로 처진 듯한 소매가 표현되어 있고 가슴 부분에 띠를 맨 듯한 모습으로 묘사된 예이다. 제주목 돌하르방의 정면 조각에서는 거의 옷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지만 뒷모습에서 이러한 표현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4>는 소매 끝을 음각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림2>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천을 덧댄 소매 끝동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제주성돌하르방 소매, 전대표현



〈그림 4〉 제주성돌하르방 소매 끝동표현

대정현 돌하르방은 제주목의 경우와는 달리 뒷모습이 거의 조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뒷모습에서는 의복의 착용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림5>처럼 정면 목둘레에 둥근데형태로 조각되어있는 예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동다리 위에 착용하는 전복의 깃형태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華城陵幸圖屏(1795년) 등의 회화자료나 『진찬의궤』에 보이는 패자의 깃형태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그림6>³⁰⁾.

쪽, 61~64쪽.

30) 이러한 자료들은 18세기 말~19세기 초반의 자료들이지만 동다리(협수) 위에 전복



〈그림 5〉 대정성돌하르방
옷착용 표현



〈그림 6〉 『진찬의궐』
‘괘자’ 모습



〈그림 7〉 정의성돌하르방
소매표현

정의현 돌하르방의 경우는 의복을 착용했음직한 묘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어깨와 팔은 <그림7>처럼 넓은 형태이며 손목부분은 좁아지는 형태로 조각되고 있어 단편적이지만, 소매가 넓으며 손목부분은 夾袖形인 옷을 착용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삼읍성 돌하르방의 조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삼읍성 돌하르방은 모든 돌하르방의 공통적인 특징인 병거지형태의 모자 표현으로 무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 외에 옷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무인상의 모습은 석재의 조각공간상태나 조각자의 의도 등에 의해 부분적인 표현에 그친 것으로 여겨진다.

2. 돌하르방의 기능

돌하르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문장·수호신적 기능, 경

(괘자)을 입고 전대를 매는 군복의 착용방법은 양란이후에 등장하는 간편한 衣制이며 이 착용법은 고종 32년 군복이 근대복장으로 개혁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김현순, 「군복에 대한 연구-具軍服을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62쪽.

제표시 기능, 주술종교적 기능의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³¹⁾.

기록에 남아있는 ‘翁仲石’의 기원이 성문 앞에서 흉노족을 지키던 수문장·수호신적인 석상이었던 점과 돌하르방이 삼읍성의 각 문앞에 세워져있었던 점을 본다면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서서 성을 지키는 수문장·수호신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제주목 돌하르방의 경우 동·서·남 3문의 돌하르방 조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육지부를 왕래하는 포구로는 동쪽에서는 별도포, 어등포, 조천관에서 출발하고 서쪽에서는 도근천, 애월포를 통해 왕래가 이루어졌으나 乙卯年(1555년) 이후 섬에서 부역을 피해 배를 타고 물으로 달아나는 자들이 있어 이후로는 조천, 별도 두 津에서만 放船을 허가하고, 방선하는 날에는 牧使軍官 한 사람이 장부와 대조하면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³²⁾. 또한 이후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1629년부터 1830까지 200년간 실제로 출륙금지령³³⁾이 내려지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조천포와 화북포는 오랜기간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포구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당시 외부 인사들의 출입이 가장 잦았던 곳은 화북포와

31) 일반적으로 돌하르방에 대한 연구논문에서는 대부분 이 세가지의 기능으로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위의 참고 논문 외에 돌하르방 관련 연구논문은 문기선, 「돌하르방의 미술해부학적 연구」, 『인문학편 논문집』13, 제주대학, 1981; 조윤득, 「제주 석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양용방, 「제주도 돌하르방의 미적특성 연구」,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사학지』34, 단국사학회, 2001. 등이 있다.

32) 김상헌 저·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156쪽.

33)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조천포에 가까운 동문이었으며 동문 밖에 설치되어있던 돌하르방이 다른 성문의 것에 비해 그 크기나 생김새 등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역동적으로 조각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 출입구로서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래인이 성문앞에 다다랐을 때 성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위치표시·경계표시의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까지 동문 밖에 남아있던 돌하르방의 배치로 볼 때 성문 앞에 바로 붙여서 설치하지 않고 성문 앞에 난 S자형의 소로를 따라 4기씩 각각 배치되었는데 성과는 100여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외지인이 성안으로 들어갈 적에 이 돌하르방을 통해 성에 다다랐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술종교적 기능은 속신적인 것들로 돌하르방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거나 대정현 북문의 돌하르방을 옮겼더니 도둑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등으로 간간히 전승되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돌하르방이 세워지고 많은 시일이 지난후에 생겨난 돌하르방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돌하르방 제작배경이 민간신앙이나 민간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관의 주도하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민간신앙적인 관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의 수많은 당처럼 돌하르방에서 어떠한 제의가 행해진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돌하르방을 소재로 한 무속신앙이나 전승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돌하르방이 있었던 마을의 몇몇 원로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 돌하르방이 어떠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었던 것만은 사실인 듯하나 일반적인 堂神처럼 받들어 모셔졌던 존재는 아니었던 듯하다.

3. 삼읍성 돌하르방의 특징

제주 삼읍에 분포하는 돌하르방의 제작수준은 牧과 縣이라는 각 읍성의 영향력이나 석상을 제작한 장인의 기술적인 차이도 있었겠지만 재료로 사용된 암석의 특징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삼읍성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석재의 특징으로 볼 때 각 성이 위치한 지역에 분포하는 돌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대정현 돌하르방의 경우 그 지역에서 돌하르방을 제작하다 버린 폐석재가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³⁴⁾.

제주성의 돌하르방은 제주성 동쪽편에 넓게 분포하는 장석과 휘석결정이 다량 함유된 조면현무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정의성과 대정성의 돌하르방은 작은 감람석 결정이 함유된 현무암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제주성 돌하르방을 만든 암석은 장석 및 휘석 결정이 많이 함유되고 기공이 적어, 암석조직이 치밀하여 돌하르방 조각 특히 얼굴이나 손가락 등의 세부표현을 비교적 섬세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정성과 정의성 돌하르방의 재료로 쓰인 암석은 기공이 크고 많아 석상을 조각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며 실제로 대정성과 정의성의 돌하르방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잘 볼 수 있다³⁵⁾.

1) 제주성 돌하르방

제주성 돌하르방은 상반신만 표현되었으며 전체적인 비율은 삼등신에 가깝다. 둥근테가 달린 병거지형태의 모자를 쓰고 큰 눈, 주먹코, 일

34) 제주대학교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1996, 390쪽.

35) 제주 삼읍성 돌하르방의 암석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제주돌문화공원 안용산 선생의 도움이 있었다.

자로 앙다문 입에 한쪽 어깨를 치켜 올려 사찰 입구의 사천왕상처럼 긴 장감을 느끼게 하는 공격·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주성 돌하르방의 크기는 157~238cm 정도로 정의성, 대정성 돌하르방에 비해 크게 제작되었다. 대부분 끝이 뾰족하고 넓은 테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으며 모자에 3단의 원을 돌리거나 모자 꼭대기에서 테있는 부분으로 세로선을 넣어 모자를 장식한 경우도 확인된다.

얼굴은 이마와 눈의 경계를 굽은 음각선을 넣어 눈썹을 표현하였고 눈은 큰 방울형태로 골을 깊게 하여 상대적으로 눈이 도드라지도록 하였다. 코끝은 뭉툭하게 벌어지며 콧구멍까지 표현하였다. 입은 일자로 앙다물거나 끝을 살짝 올려 수문장으로서의 위엄을 표현하였다.

몸통은 하반신을 생략하고 상반신만 표현하여 상대적으로 위압감이 느껴진다. 한쪽 어깨를 치켜올리거나 살짝 틀어서 공격과 방어의 자세를 취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며 가슴 근육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여 건장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소매가 늘어진 도포형태의 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간혹 소매와 뒷허리에 띠형태의 옷모양을 조각한 경우도 있다.

받침돌은 자연석을 다듬어 사용하였으며 상면에 돌하르방을 끼워 세울 수 있도록 얇은 홈을 내었다. 받침돌의 측면에는 『형 또는 □형의 홈을 내었는데 이러한 형태가 마주보는 한 쌍으로 놓여있었고 이 구멍은 정낭을 걸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 정의성 돌하르방

정의성 돌하르방 또한 상반신만 표현되었으며 전체적인 비율은 이등신에 가깝다. 크기는 대정성 돌하르방 보다 약간 크지만 상대적으로 날

쥘린 형태이며 앞면 조각부분을 제외하면 직육면체로 재단된 원석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 제주성 돌하르방을 제작한 석재보다 구멍이 크고 많은 재료상의 특징으로 인해 조각표현이 세밀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돌하르방의 크기는 120~177cm 정도이나 대부분 150cm 이하이다.

모자는 끝을 잘 다듬지 않아 끝이 편편한 경우가 많으며 모자의 테는 각이 없이 둥글게 말아진 것처럼 표현하였다. 모자의 끝이 편편한 것은 돌하르방을 조각하기 위해 직육면체로 채취한 암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모자의 테 너비가 얼굴 너비보다 작게 조각되어 작은 모자를 쓴 듯하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없으며 삼각형으로 튀어나오게 조각한 코를 제외하고는 평면적인 조각수법을 하고 있다. 눈썹의 표현은 없으며 눈은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게 음각으로 표현하였고, 코의 밑면 너비와 거의 비슷하게 일자로 다문 입을 음각하고 있다.

양어깨는 각이 없이 거의 얼굴과 같은 너비로 수평되게 표현하였으며 손의 위치는 모두 제주성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위에 상하로 엇갈리게 놓여있거나 간혹 가슴을 껴안은 듯한 자세로 조각되어 있다. 사용된 석재의 기공이 커서 손가락 등의 세부표현은 세밀하지 못하고 주먹을 쥔 듯 둥글게 표현한 경우가 많다.

반침돌은 자연석을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제주성의 것과는 달리 반침돌의 측면에 홈은 보이지 않는다.

3) 대정성 돌하르방

상반신만 표현되었으며 전체적인 비율은 이등신에 가깝다. 정의성 돌하르방보다 크기가 작고 통통한 형상이다. 얼굴이나 손 등의 세부표현

은 제주성 돌하르방에서 보이는 위엄성이나 정의성의 무뚝뚝함보다는 소박하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인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뒷면은 대부분 조각되지 않은 자연석의 상태 그대로이며 간혹 조각에 실패하여 앞면을 재사용한 흔적도 찾을 수 있다. 돌하르방의 크기는 108~146cm 정도로 삼읍성의 돌하르방 중 가장 작다.

모자는 제주목의 것과는 같이 각이 진 테가 둘러진 형태이나 테두리의 폭이 좁고 모자의 전체높이가 낮으며 뒷면은 조각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눈은 이중의 음각선을 타원형으로 새겨 얼굴면보다 약간 돌출되게 표현하였고 코는 정의성 돌하르방과 마찬가지로 형태는 삼각형이며 코의 바깥면을 얇게 파서 상대적으로 코가 도드라지게 하였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는 모습으로 음각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띠게 한다.

어깨는 얼굴너비보다 약간 넓게 표현하였으며 양어깨의 높이는 거의 수평으로 조각되었다. 손가락은 짝 펼친 형태로 묘사되었고 손의 위치는 가슴을 껴안듯이 상하로 놓이거나 배위에 나란히 마주놓여 있는 형태이다. 몇몇 돌하르방 목부분에는 옷깃 형태로 둥글게 조각되어있다. 대부분 뒷면은 머리에서부터 몸통까지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두었다.

현재 대정성 돌하르방에서는 받침돌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나 1914년 촬영된 사진에서 정의성 돌하르방의 받침돌과 같은 형태의 받침돌 위에 올려진 돌하르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돌하르방의 이동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은 받침돌이 전부 있었던 제주성 동문 밖 돌하르방의 경우도 받침돌을 그대로 둔 채 돌하르방만 옮겨간 예가 있어서 이동 당시 문화재적 가치인식의 부족과 운송방법상의 한계에 의해 이러한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표 1〉 제주 삼읍성 돌하르방의 특징

구분	제주성 돌하르방	정의성 돌하르방	대정성 돌하르방
크기	• 157~238cm	• 120~177cm	• 108~146cm
모자	• 끝이 뾰족하고 넓은 테가 달린 병거지형태 • 모자에 3단 원이나 세로 선을 넣어 장식	• 끝이 편편한 경우가 많으며 테는 각이 없이 둥글게 말아진 것처럼 표현 • 모자 너비가 얼굴 너비보다 작게 조각	• 모자 테의 폭이 좁고 모자의 전체높이가 낮으며 뒷면 조각은 생략
얼굴	• 이마와 눈의 경계에 눈썹 표현 • 둥근 눈, 뚱뚱한 코 등 볼륨감 있는 얼굴표현 • 입은 일자로 앵다물거나 끝을 살짝 올려 수문장으로서의 위엄 표현	•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코를 제외하고는 평면적인 얼굴표현 •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표현 • 코의 밑면 너비와 거의 비슷하게 일자로 다문 입	• 눈은 이중의 음각선을 타원형으로 새겨 얼굴면보다 약간 돌출되게 표현 • 코의 바깥면을 얇게 파서 상대적으로 코가 도드라지게 표현 •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는 모습으로 음각
신체 표현	• 한쪽 어깨를 치켜올리거나 살짝 틀어서 공격과 방어의 자세를 취함 • 가슴 근육을 도드라지게 조각 • 소매가 늘어진 도포형태의 옷 착용 • 양손은 상하로 엇갈리게 표현	• 어깨는 각이 없이 거의 얼굴과 같은 너비로 수평되게 표현 • 손의 위치는 배위에 상하로 엇갈리게 놓여있거나 간혹 가슴을 겨안은 듯한 자세로 조각 • 석재의 기공이 커서 손가락 등의 세부표현은 세밀하지 못함	• 어깨는 수평이며 얼굴너비보다 약간 넓게 표현 • 손가락을 짝 펼친 형태 • 손의 위치는 가슴을 겨안듯이 상하로 놓이거나 배위에 나란히 마주놓여 있는 형태 • 목부분에는 옷깃 형태로 둥글게 조각
받침돌	• 자연석을 다듬어 사용 • 측면에 『형 또는 □형의 홈을 낸』	• 자연석을 다듬어 사용 • 받침돌 측면의 홈 없음	• 받침돌 확인되지 않음 • 1914년 촬영된 사진에서 정의성 돌하르방의 받침돌과 유사한 형태의 받침돌 확인 • 돌하르방의 이동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

4. 제주성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재 제주 삼읍성 돌하르방 중 성문 앞 제 위치에 있는 것은 정의성

앞 돌하르방 밖에 없다. 제주성의 것은 제주시내 곳곳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고 대정성의 것 또한 성 인근에 흩어져 있다.

돌하르방의 본래 위치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각 읍성의 문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었는지,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 혹은 신분상의 구분이 있었는지 등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원위치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본 항에서는 이동위치 추적이 비교적 뚜렷한 제주성 돌하르방의 위치이동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위치이동에 대해서는 장황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원상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생각된다.

제주성 돌하르방 중 가장 늦게까지 원상태를 유지했던 것은 동문 밖 돌하르방이다. 이는 남문이나 서문 돌하르방이 있던 'S'자형 소로는 중앙로에서 남문로, 서문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일찍이 훼손된 것에 비해 동문의 'S'자형 길은 신설되는 길에서 약간 비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원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4년 일본이 식민지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측량을 실시할 표본지구로 제주도를 선정하면서 제주의 모습을 기록사진으로 남긴 것 중 동문 밖 돌하르방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8>. 이 사진에는 성벽이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8기의 돌하르방 중 안쪽 4기의 모습이 잘 남아있다. 이러한 모습은 1925년이후 제주항이 건설되면서 성벽은 매립재로 허물어져 그 형태를 잃게되지만 돌하르방은 1960년대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³⁶⁾.

36) 현용준 선생의 조사 연구자료와 만농 홍정표 선생의 사진자료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림 8〉 1914년 제주성 돌하르방 모습(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60년대까지 제자리를 지켰던 동문 밖 8기 중 먼저, 사진이 남아있는 안쪽 4기의 이동사항을 보면 성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앞쪽 우측의 것과 그 대각선상의 것이 1960년대 중반, 당시 국립한국민속관(현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2기는 당시 제주대학교로 옮겨졌다가 현재의 제주대학교가 신축되면서 제주대학교 정문 좌우에 마주보게 세워져있다. 돌하르방 4기 중 서로 마주보게 세운 것이 일반적으로 한조를 이루는 것으로, 이동 시에도 그렇게 짝을 맞춰 이동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당시 국립한국민속관에서 대각선상에 놓인 돌하르방을 옮겨간 이유는 제주대학교 정문에 세워진 것보다 형태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석재에 흠이 거의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⁷⁾. 다행히 이들 4기는 모두 받침돌과 함께 이동되어 있어 그 원상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37) 이는 돌하르방의 이동시 대부분 받침돌을 같이 옮기지 않은 것과 함께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동문 밖 바깥쪽 4기에 대해서는 2기는 1966년, 당시 제주민속박물관(관장 진성기)으로, 2기는 당시 도청(현 시청위치)으로 이동되었다. 제주민속박물관으로 옮겨진 2기는 박물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돌하르방은 옮기지 못하고 당시 맞은편에 위치했던 KBS방송국(현 교보생명 위치)으로 옮겨졌으며 KBS방송국이 현재의 위치로 이동되면서 돌하르방도 옮겨졌다³⁸⁾. 도청으로 옮겨졌던 2기는 그 자리가 시청으로 바뀌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들 4기는 모두 받침돌이 돌하르방과 같이 옮겨지지 못했으며 현재는 새로 제작된 받침돌 위에 얹어져 있거나 그대로 바닥에 놓여있다. 동문 밖 돌하르방의 위치이동양상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문과 남문 돌하르방의 경우는 동문에 비해 위치 이동이 뚜렷하진 않지만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서문은 1930년에 성문주변 지적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가 성문주변이 훼손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³⁹⁾. 서문 밖 돌하르방의 설치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동문과 마찬가지로의 형태로 8기의 돌하르방이 4기씩 설치되어

38) 당시 돌하르방을 이동시킨 진성기 관장(현 제주민속박물관)의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9) 서문에 해당하는 847-1번지와 남문에 해당하는 1947-1번지의 토지대장에 의해 지적분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있었으며⁴⁰⁾ 이들 중 4기는 가까운 관덕정으로, 4기는 동문로터리근처 (구 삼천서당 앞과 명승호텔 앞)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50년대의 사진과 1960년대의 조사 시 관덕정에 6기의 돌하르방⁴¹⁾이 있었기 때문에 서문의 6기가 관덕정으로 이동되고 2기만 동문로터리쪽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1954년 편찬된 담수계 편 『증보 탐라지』의 기록에 삼문이 헐리면서 2기는 관덕정 앞에, 2기는 삼성사 입구에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어서 관덕정의 6기 중 2기는 약간의 시기차를 두고 다른 곳에서 옮겨진 것으로 해석된다⁴²⁾. 이 기록에 보이는 ‘삼문’이 서문과 남문 중 어느 문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동 정황으로 유추해 볼 때 남문일 가능성이 높다⁴³⁾.

40) 현용준은 1960년대 조사 당시 돌하르방이 있던 동문밖 ‘S’자형 길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있었으며 1기가 원위치에 남아있던 남문의 경우도 ‘S’자형 소로였으므로 동·서·남문의 바깥 길이 방어상의 의미에서인지 모두 ‘S’자형 소로로 되어있고 그 두 굽이마다 석상을 2조씩 8좌를 세웠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필자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문 밖 길의 형태는 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거의 원상 그대로 남아있으며 남문과 서문의 경우도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어 그 형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S’자형 소로의 흔적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현용준, 앞의 논문, 257쪽.

41) 1950년대의 사진에 관덕정 처마 밑 좌우에 2기, 기단 아랫부분에 2기가 서 있는 모습이 있으며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당시에 관덕정 뒤편에 2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1960년대 현용준, 김영돈의 조사와 1970년대 김두하의 조사시에도 관덕정 앞에 4기 뒤에 2기로 총 6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정선, 『옛사진으로 보는 돌하르방』,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2007, 13쪽 ; 현용준, 앞의 논문, 254쪽 ; 김영돈, 앞의 논문, 37쪽 ; 김두하, 앞의 책, 9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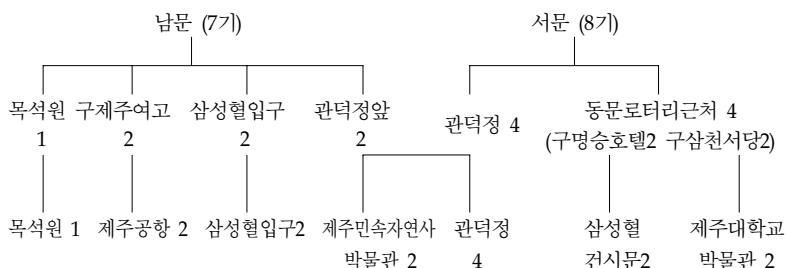
42) 1930년대의 사진에 삼성혈 입구로 옮겨진 돌하르방사진이 남아있으며 삼성사재단에 확인 결과 1930년에 삼성혈입구 돌하르방 이동사항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비록 1954년에 편찬된 책이지만 1930년대 이전의 기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선, 앞의 책 사진 설명, 10쪽.

43) 현재 삼성혈 앞의 돌하르방의 경우 크기가 2m가 넘는 거대한 것으로 당시(1930년대)의 운송수단의 상황이나 이동거리 등을 살펴볼 때 서문에서 이동하기에는 어려웠

관덕정에 옮겨진 6기(서문4기, 남문2기) 중 4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며 동문로터리 부근으로 옮겨진 4기 중 구 삼천서당 앞의 2기는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에, 구 명승호텔 앞의 2기는 1963년에 고춘호씨가 삼성혈에 기증한 것으로 전하며 현재 삼성혈 전시문 앞에 세워져있다. 관덕정 앞의 6기 중 관덕정 처마 밑에 있던 2기는 1980년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아쉬운 점은 관덕정에 있던 6기 중 어떠한 것이 서문의 것이며, 어떠한 것이 남문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담수계 편 『증보 탐라지』에 2기를 ‘관덕정 앞’으로 옮겼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앞쪽의 4기 중 2기는 남문, 2기는 서문의 것으로 추정된다.

남문 역시 서문과 마찬가지로 성문주변이 1930년에 지적분할되었다. 남문 밖 돌하르방의 경우는 1960년대 현용준선생의 조사 당시 남문 밖 원위치에 허리가 부러진 돌하르방 1기만 쓰러져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돌하르방 48기 중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1기는 남문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문의 것은 1기가 분실되어 총7기이며 1960년대 돌하르방에 대한 조사 시 이미 남문 근처에 소재하던 구 제주여고 앞에 옮겨진 2기(현재 제주칼호텔 위치)는 학교가 옮겨갈 때 같이 이동하지 못하고 제주공항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원상을 유지하였던 1기는 현재 탐라목석원으로 옮겨져 있으며 나머지 4기는 담수계 편 『증보 탐라지』의 기록처럼 2기는 삼성사 입구에, 2기는 관덕정 앞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남문과 서문 돌하르방의 위치 이동양상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문헌에 보이는 돌하르방 관련 기록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해석, 돌하르방의 기원, 돌하르방의 신분과 기능, 삼읍성 돌하르방의 조형적 특징 그리고 제주성 돌하르방의 원위치 복원에 대해 정리하였다.

돌하르방은 제주의 삼읍성인 제주성, 정의성, 대정성 성문 앞에 세워져 있던 석상으로 문헌에는 영조 30년(1754) 김몽규 목사가 성문 밖에 웅중석(翁仲石)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웅중’은 진시황때의 장수인 완옹중(阮翁仲)을 가리키며 그의 용맹스러움을 기려 성문 앞이나 궁궐 앞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후 이러한 석상들을 모두 웅중석이라 부르게 된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도 길가에 세워지는 석상, 무덤 앞에 세워지는 석상 등을 모두 웅중석이라 부르고 있어서 삼읍성 성문 앞에 세워졌던 웅중석은 지금의 돌하르방임을 알 수 있다.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와 김몽규 목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돌하르방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탐라기년』이라는 역사서에 대

한 저술가의 저술형태에 비추어 볼 때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판단된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조형적인 유사성을 가장 중심에 두어 몽고에서 기원했다는 북방전래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원했다는 남방전래설 그리고 제주도의 자생적인 조형이라는 점을 일부 포함한 육지전래설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조형적 유사성만으로 문화의 전파를 말할 수는 없으며 당시 사회·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배경 등 다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북방전래설이나 남방전래설의 경우는 일부에서 보이는 형태의 공통점이나 주기능이 아닌 부수적 기능의 유사성을 들어 전래설을 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몽고전래설의 경우 훈출로와 돌하르방제작시기 사이의 공백기, 형태나 기능적 차이점 등에 대한 해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남방전래설의 경우 또한 해류와 관련하여 남미계 열 석상과의 관련성 등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오히려 제주도가 섬으로, 비록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조선시대 중앙집권체제 하의 한 지방으로서, 어떠한 문화의 형성에는 많은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방전래설이나 남방전래설을 논하기에 앞서 육지부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장승·벽수와 의 친연성과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래되는 석상문화와 똑같은 형태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 이상 토착적인 석상문화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과제이다.

제주 삼읍성의 돌하르방은 병거지형태의 모자, 하반신이 생략된 형태의 묘사, 양손을 배위에 얹은 표현 등에서 크게 조형적인 공통점을 보이지만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삼읍성 각각의 독특함을 보이며 또한

각 읍성별로는 형태적 집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돌하르방 제작이 각 읍성의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읍성별로 일시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돌하르방의 조형적인 면을 살펴보면 삼읍성 돌하르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거지형태의 모자나 부분적으로 표현된 옷착용 모습에서 당시 무인복식 중 모자인 전립(氈笠)과 의복인 동다리, 전복(戰服)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돌하르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거지형태의 모자를 통해 무인상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일부 돌하르방에서 보이는 옷의 표현 또한 무인복식의 일부를 조각하여 이러한 상징성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돌하르방의 주 기능이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 즉 무인상이라는 점과도 일맥상통 한다.

현재 제주 삼읍성의 돌하르방은 복원 정비되어 제자리를 찾은 정의성 돌하르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되어 있다. 다행히 분실된 1기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보수되거나 받침돌이 분실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원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동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증언에 의해 각지로 흩어져 있는 돌하르방의 원위치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을 찾는 작업은 돌하르방을 본래의 위치에 옮겨놓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돌하르방은 제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제주의 어느 곳을 가도 돌하르방을 접할 수 있다. 그러한 때문인지 정작 돌하르방은 본모습을 잃고 그 가치가 퇴색되어 흥미위주의 관광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하르방은 제주의 수많은 독특한 문화 중의 하나이다. 제주의 것을

중심에 두고 문화의 주체성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의 문화를 등한시하고 잘 모른 채 다른 문화의 우월성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제주의 대표 문화재로서 돌하르방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돌하르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원상에 대한 기록도 충분히 남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하르방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재해석, 용어에 대한 문제, 다른 석상문화와의 관련성, 돌하르방의 제작배경 등과 같은 역사적·문화적 연구는 물론 각 돌하르방의 조형적인 공통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인들의 작업형태, 조각수법 등의 미술사적인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이다.

그동안의 돌하르방 연구는 1960년대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를 재인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비록 이 글 또한 그러한 연구의 한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 글을 쓴 취지의 한편으로는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 김두하, 『벽수와 장승』, 집문당, 1995.
-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여행』1, 고래실, 2007.
- 김상헌 저·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 김석익, 『耽羅紀年』, 1918.
-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 담수계 편, 『증보 탐라지』, 1954.
-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I, 한겨레출판, 2007.
-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2003.
- 제주대학교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1996.
- 권오선,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동진,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2004.
- 김병모, 『韓國 石像文化 小考』, 『한국학논문집』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 김영돈, 『제주·대정·정의 주현성 석상』, 『한국문화인류학』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김정선, 『옛사진으로 보는 돌하르방』,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2007.
- 김현순, 『군복에 대한 연구-具軍服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문기선, 『돌하르방의 미술해부학적 연구』, 『인문학편 논문집』13, 제주대학, 1981.
-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송혜주, 『조선시대 중인 복식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양용방, 『제주도 돌하르방의 미적특성 연구』,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사학지』34, 단국사학회, 2001.

정승모, 「돌하르방과 타 지역 석상 비교」,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2007.

조운득, 「제주 석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오와 관련하여」, 『강원사학』9, 강원사학회, 1993.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오와 관련하여」, 『청대사림』6, 청주대학사학회, 1994.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루방)’ 考」,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Abstract

A Study on Ongjungsuk (Dolharubang) of Jeju Island

Kim, Jung-Sun*

Dolharubang is widely used as a representative image of unique stone culture in Jeju Island. It had been recorded as a 'Ongjungsuk(翁仲石)' in ancient official document standing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Sam Eup Sung(Three City of Jeju Province). 'Ongjung' was the famous ancient military commander in Chin Dynasty(the first unified empire of China). And people had standed 'Ongjungsuk' in front of the royal palace commemorating his brave and royalty. Hereafter, 'Ongjungsuk' had been denoted such a Dolharubang.

There are many theories about the origin of Dolharubang such as introduction from northen district theory(from Mongol), southern district theory(from Bali, Indonesia), mainland theory(in Korean Peninsula), and so on. Despite Jeju Isalnd is located far from mainland, it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entral government of Chosun Dynasty, and predominant culture, we must proceed the discussion of mainland theory(in Korean Peninsula) involving the relation of 'Jang Seung, Buck Soo(Korean milepost in human shape)'

There are many artificial common feature in Dolharubang of Sam Eup Sung(Three City of Jeju Province) such as hats, abridgment of the lower half of body, hands, etc revealing unique feature in details. However the most important common features in Bungeogi,

* Jejustonepark,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arthistor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lip(soldier's headgear), Dongdary and Junbock(soldier's uniforms) are the mode of military uniforms, so we can authenticate that the main function and feature are Muinsang(shape of soldier) - chief soldier of gatekeeper troops.

Every Dolharubang of Sam Eup Sung(Three City of Jeju Province) restored to the original state and relocated except the Dolharubang of Jung Eu Sung. Fortunately we can find some important record and testimony witnessing Dolharubang's original location, but the finding original shape, state and location are outstanding challenge of our generation.

Key Words

Dolharubang, Ongjungsuk(翁仲石), introduction from northern district theory(from Mongol), southern district theory(from Bali, Indonesia), mainland theory(in Korean Peninsula), Jang Seung, Buck Soo(Korean milepost in human shape), Bungeogi, Junlip(soldier's headgear), Dongdary, Junbock(soldier's uniform), Muinsang(shape of soldier), restoration

교신 : 김정선 695-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 제주돌문화공원
(E-mail : kiln119@hanmail.net 전화 : 016-532-3118)

최초 투고일 2008. 7. 29

최종 접수일 2008. 8. 17